

뷰티(헤어)문화 산업에 있어서 번역의 필요성 연구

김동미*, 류은주**

충북대, 한서대

Dongmie Kim, Eunju Rhyu(2018): A Study of the Need for Translation within the Beauty(Hair) Industr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eed for translation within the beauty(hair) industry. First, the meaning of culture and culture industry was addressed,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beauty industry in general. A survey was conducted on a group of professional hair designers and students majoring in hair design. Survey questions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fessional hair designers did not think English was important in their practice while recognizing the need for practitioners to have a basic command of English.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a set of translation theories including the poly system theory was explored.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oly system theory, which was deemed useful in explaining many translation phenomena, needed to be applied from a different light for situations where language was involved as a secondary condition as was the case in this stud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anseo University, Korea)

Keywords: poly system theory, translation, hair industry, culture industry, beauty industry.

1. 문화와 문화산업의 정의

번역가가 번역이라는 큰 작업을 수행할 시에 처음으로 큰 밑그림이자 배경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은 원천언어와 목표 언어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단순

* 주저자.

** 공동저자.

히 번역 수행작업만을 놓고 번역의 잘됨과 그렇지 않음을 볼 수도 있겠지만 번역가가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여 번역한다면 읽는 독자들은 한층 더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등가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전달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현저히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에서 말하는 문화 번역 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한 나라나 언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적어도 둘 이상의 언어나 나라가 공존할 시 비교하거나 번역한다는 조건 아래에 문화의 의미와 역할 및 기능은 그 개념에 있어서 구체적일 것이다.

따라서 문화라는 의미 자체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번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의미가 각 언어나 나라마다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본 논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를 국가마다 정책상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비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에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 양식의 총체(總體)’라고 금성 그랜드 국어사전에서는 언급하고 있다(1995).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에서 문화와 문화산업담당기관을 두고 운영·관리하며 문화를 이루는 요소로는 ‘예술성, 대중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등이 있고 문화에 해당하는 범위가 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인식의 변화로 확대될 수 있다(김자영 2016: 22)고 문화의 범주에 규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주별로 자치기구 산하의 ‘문화예술 분과(Division Art and Culture)’의 형태로 운영을 하며 문화에 대한 인식은 ‘예술과 문화’로 인식하여 인류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는 미적 작품인 ‘Arts’의 생산과 계승,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 기술하며 이에 해당하는 장르로는 ‘음악, 댄스, 건축, 시각 예술 및 문학 등’이 있다(이동희 2013: 10)고 문화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의 고장’ 프랑스에서는 문화를 인간의 창조적 정신과 창작 활동의 산물로 인식, 창조적 창작 활동과 문화 소비의 대중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를 ‘문화적 자산’으로서 인식하여 창조성과 자율성이라는 인식으로 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일관하고 있다(이동희 2013: 9).

마지막의 예로 중국과 일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문화와 문화산업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규칙, 의식, 언어, 사회 생활방식’ 등이 문화에 포함되며, 인식되는 범주로는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이 이에 해당하고 문화부(文化部)라는 중국 정부 부서를 두고 문화 및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성미나, 2012, 23).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일에

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의 부산물과 이에 따른 창작물로 인식하고 있다(문혜진 2012: 23).

2. 뷰티(미용)산업의 정의

국내에서의 뷰티(미용)산업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대와 기관에 따라 다소 그 개념·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시대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각 기관에서 국익에 따라 추구하는 지향점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 뷰티(미용)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가 미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뷰티(미용)산업의 정의로는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이동희 2013: 11)으로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그와 관련된 미용 기기, 용품 등 제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형, 패션, 의류, 스파 등도 광의의 뷰티 산업으로 인식은 되나, 제도 개선 중이며 아직까지 뷰티(미용)산업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윤상일 2011: 19)고 그 경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뷰티(미용)산업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내용과 다소 수정된 사항을 볼 수 있다. 즉, ‘아름다움, 감동, 매력 등을 추구하는데 이용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유민정 2014: 2)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광의의 뷰티(미용)산업은 미적 디자인, 감동, 세련됨 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로서 성형이나 패션, 디자인, 헬스까지 뷰티(미용)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유민정 2014: 3). 한편, 협의의 뷰티(미용)산업은 신체와 결부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 즉, 성형, 화장품, 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두피 관리, 가발, 스파 등으로 한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9)고 정의를 내린다.

지금까지 ‘문화와 문화산업’, 그리고 ‘뷰티산업의 정의’에 관해 살펴보았다. ‘산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사회·

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요소는 정치적인 전략과 정책에 그 방향이 많이 좌지우지(左之右之)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가 정치에 의해 작용한다. 번역과 산업의 그 연관성의 맥을 짚어 볼 때 다중체계번역이론으로 번역과 정치의 전략 및 정책을 그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의 전략 및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산업은 영향을 받으며, 번역 또한 정부에의 전략등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어떤 때는 긍정적인 전략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중체계번역이론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이론과 함께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겠다. 다음은 다중체계번역이론의 기원에서부터 번역과의 연관된 흐름의 연구로서 본 논고에서 이 둘이 어떻게 연구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술한 부분이다.

3. 다중체계번역이론과 뷰티(헤어)산업

처음으로 번역에 있어서 다중체계이론에 대한 언급은 1970년대 Even-Zohar (에벤-조하르)와 Toury(투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 개념을 대략 살펴보면, 다양한 문학과 장르를 망라하여 번역된 작품과 번역 되지 않은 작품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것이다 (전현주 2004: 168). 문학의 다중체계이론 개념은 Hermans(헤르만스)가 1985년에 ‘조작학파’(Manipulation)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문학학적 다중체계에 번역이론이 도입되었다(전현주 2004: 169). 이들이 도입한 다중체계번역이론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번역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적 요인이 역어권의 민족 문학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천언어(source language)보다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를, 번역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번역 문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목표언어의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면과 둘째 번역 규범과 행동 및 정책이 기타 상호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면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번역이 ‘다학제(多學題)’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밖의 다른 학문과의 접촉점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과 다중체계이론의 연구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현주가 ‘다중체계이론과 한국 현

대 번역 문학사(2004)로 그 맥락을 짚고 있다. 전현주는 현대 문학에 있어서 번역의 출판물을 개화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출판물) 양과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시대사조와의 영향 및 국가정책과의 맥락에서 다중체계이론(poly system theory)을 통해, 응용하여서 근 현대적으로 대한민국 번역물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기류를 분석하고 시대사조를 증명하였다.

본 논고의 논자는 전현주가 분석·증명한 번역과 다중체계이론의 관계보다 한층 더 깊이 관찰·분석하고자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전현주는 번역과 다중체계이론을 1차적으로 작용하여 출판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과 현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면 논자는 순수하게 번역 현상 자체 및 눈에 보이는 번역물 이면에 수반되는 2차적인 번역 성향 및 실태와 다중체계이론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번역과 문화산업’이라는 큰 주제에 따라 1차적으로 문화산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2차 과정으로 양산되는 번역에 과연 다중체계이론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찰을 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4차 혁명이나 인공지능(人工知能)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시스템 아래에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번역 자체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번역이 2차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하게 번역의 범주를 전문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중체계이론(Poly system theory)과 더불어서 미용(헤어)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선, 헤어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되고 발전되었는지 그 ‘흥망성쇠’의 흐름을 잡아 볼 필요가 있겠다.

헤어미용의 역사에 관하여 김수민(2017: 50)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헤어미용에 관하여 논하였다. 김수민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신문명(新文明)에 의해 미용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한일 합방(韓日合邦) 이후부터 일본, 중국 등 외국 각지를 순방하거나 공부하고 돌아온 “신여성(新女性)”에 의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2017: 50)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서 김수민은 1960년대 들어서 미용(헤어)기술의 발달과 다양화로 머리 모양의 변화가 행해졌고 단발머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김수민 2017: 51)고 기술하고 있다. 1970년대 헤어기술의 보다 더 세련된 기술로 인하여 다양한 퍼머(permanent) 머리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염색기술의 발달과 유행이 있었고 현재에는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이 중요시되어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함께 다양한 스타일이 선호된다(2017, 52)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는 「Beauty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2009)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로는 헤어미용은 업소 수가 약 82,551개로 종사자 수가 248,310명으로 집계를 하였다(이동희 2013: 16). 이어 피부 미용은 17,979개의 업소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53,936명의 종사자 수가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네일 미용은 약 3,715개의 업소 수를 보유하고 있고 약 15,062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였다(이동희 2013: 14).

이 밖에도 국제화 시대로 인하여 국내 매장의 해외 진출이나 헤어미용사의 해외 취업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활기차다고 김혜정(2017: 11)의 논문을 통하여서 그 현상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헤어미용을 토대로 네일미용과 피부미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논문의 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용산업이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기류를 탄다는 다중체계이론과는 약간 다른 차원의 기류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 일련의 예로, 미용 산업 내에서 유행하는 유행, 즉 트렌드(trend)는 작은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기류에 따른 이론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헤어미용을 예로 들자면 작은 유행의 ‘흥망성쇠(興亡盛衰)’ 배후에는 고공행진 하는 헤어산업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는 피부 미용이나 네일미용은 그 역사성에 있어서 짧은 기록과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미용보다 비교 대상이 되는 헤어미용을 다중체계이론(poly system theory)과 번역 그리고 미용산업 종사자와 전공자들에 적용하고자 한다.

4. 미용(헤어)산업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II

4.1. 설문 조사 대상

미용산업분야에 대하여 언급을 할 경우 크게 네일, 피부, 헤어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다. 피부미용은 2008년 기준으로 지

상 규모 약 1조 7천억원에 해당하며, 네일미용은 약 3천 700억원에 해당하는 지상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헤어미용은 약 6조원에 걸쳐서의 지상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황순옥 외, 보건 산업 진흥원 2009 재인용). 본 논고에서는 뷰티(미용) 산업계 중 피부미용이나 네일미용은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는 추세라 볼 수 있으며, 또한 대중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점과 그 연구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이 두 분야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헤어미용을 통하여서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논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헤어미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한 범주로서 미용(헤어)분야의 현재 종사자 및 앞으로 헤어미용에 종사하고자 준비하는 학원과 학교의 실습생 및 교육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수 해외에서 헤어미용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실습을 경험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남·녀의 성별 구분 없이 실시하였고 나이와 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문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과 설문내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용(헤어) 전문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4년제 대학교의 미용학과(헤어 전공)교수이며, 전문가인 공동저자(류은주)와 협업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도 질문을 삼가고 선택형의 객관식 질문하였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질문 모두 삼지 선다형 질문과 1개에 걸쳐서 123개의 미용 전문용어인 영어(source text)에 대하여 한국어(target text)로 그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는 주관식 설문을 수행하였다. 총 100부를 배포하여 80여 개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수거하였고, 그 가운데서 객관식에 대한 답변이나 주관식의 답변이 미비한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정확성 및 통계를 수행할 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에 사용된 조사지는 100개 중 69개로서 미용(헤어)전공자로 제한된 범위의 설문조사 대상으로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설문조사 내용은 본 논고의 끝에 수록하여 논문의 공정성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4.2 미용(헤어)산업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

미용(헤어)산업분야의 종사자와 번역의 인식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6개의 질문을 하고 통계를 내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설문내용의

질문은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O·X의 유도질문을 피하고 삼지선다형의 예문 즉,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의 선택형 또는 ① 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혹은 ① 예 ②아니오 ③모르겠다 의 3가지 사항 중에 하나의 답변을 고르도록 실시하였다. 100부 전체 오프라인(off line)으로 실시하였으며 뷰티(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에 한 설문조사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채점에 대한 평균값의 통계에 대하여 뷰티(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I)을 그림이 아닌 도표로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논고에 서술된 설문조사의 내용과 수치는 실제로 설문한 내용과 수치에 100%로 일치하며 본 논문을 통하여서 그 사실 여부를 객관화하고자 최대화하였다.

첫째 설문조사의 내용에 있어서 뷰티(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의 그림[1]의 질문내용은 미용·뷰티(헤어)분야의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의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내용은 헤어산업 종사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는지 혹은 이미 진출을 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영어의 인지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 분야에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본 논고는 번역과 관련된 커다란 밑그림에 해당하는 바탕의 여지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설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을 통하여서 설문의 통계와 수치를 번역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나는 통계와 수치를 통하여서 분석할 수 있는 현상은 뷰티(헤어)분야의 산업종사자들의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40명, 58%)이 해외 진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13명, 19%), 또는 해외 진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모르겠다(16명, 23%)는 응답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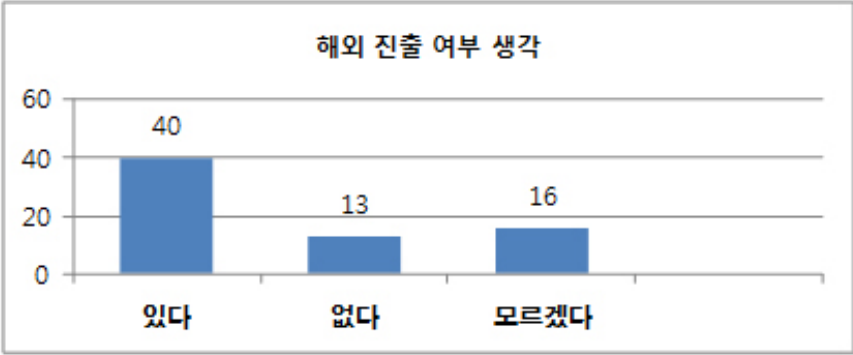


그림 1. 해외 진출 여부 생각에 대한 미용(헤어)산업 종사자의 인식 여부

이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위의 그림에 나타나는 통계와 수치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현상은 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미용(헤어)산업 종사자들이 과거에 국내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기존의 미용(헤어)산업 종사자들의 선배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정부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최무연, 2016, 20)한 이후로 미용(헤어)산업 분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이들이 위에서의 통계와 같이 해외 진출 여부에 대하여 많은 수에 해당하는 헤어 종사자가 생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수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혜정, 2017, 8). 국제 언어인 영어가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언어 이외의 경제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헤어 종사자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싶으나 그것이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하여 같은 설문조사 대상자들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언어 즉, 영어가 장애가 된다는 답변이 40명(58%)으로 집계되며 아니오의 답변은 19명(28%)로 나타나고 나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10명(14%)로 통계되었다. 이렇듯 아래에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미용(헤어) 종사자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은 가득하나 언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진출 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언어가 주 전공이 아닌 헤어전공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언어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들이 영어 때문에 미용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영어와 한국에서의 미용학습과 관련하여 그 관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설문 사항을 설문조사에 포함한 이유는 만약 미용학습 시간이나 기간에 영어의 중요성이나 그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적게나마 정확한 영어(외국어) 미용 전문용어에 대한 학습이 있었다면 굳이 위에서 조사된 영어의 심적 부담감이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크게 집계될까 하는 의구심에 실시하였다. 만약 영어(언어) 장애물이 해결된다면 헤어 전공자들의 해외 진출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가치창출 역시 문화 수출 산업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도 해주는 설문조사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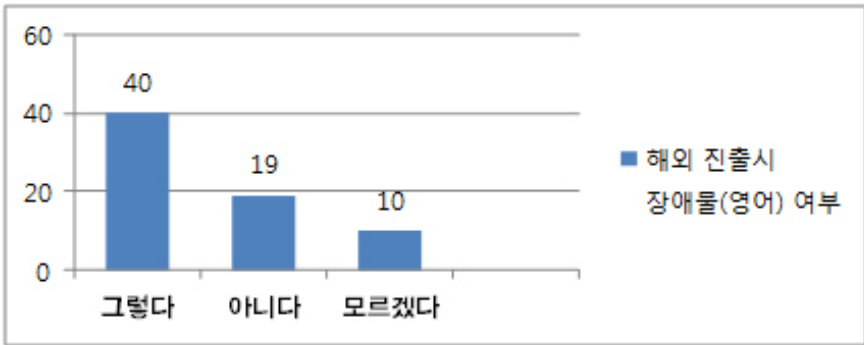


그림 2. 해외 진출 시에 장애물(영어)로 여기는 미용(헤어)산업 종사자의 인식 여부

미용(헤어)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서양국가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김수민,2017,50). 특히, 우리나라에 미용(헤어)산업이 자리 잡고 발전하기까지 미용 전문용어 또한 미용(헤어)산업과 더불어서 그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미용(헤어)기술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마음에 들게 머리를 손질한다고 해도 미용(헤어)전문가로서 미용(헤어)전문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극도로 제한된 영역의 전문가로 활동 영역이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설문조사 사항은 미용(헤어)학습 기간에 영어(전문용어)를 습득해야 하거나 이해해야 할 때 얼마나 학습에 장애가 되는지 설문조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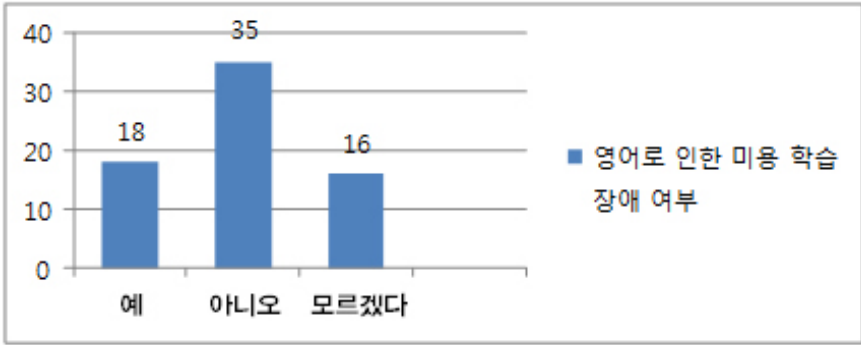


그림 3. (영어로 인하여 헤어 학습을 장애물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헤어산업 종사자의 인식 여부

설문조사 결과, 위의 그래프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 때문에 학습에 장애를 느꼈다는 응답은 18명(26%)이고 학습에 장애를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은 35명(51%)으로 나타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6명(23%)으로 미용학습 기간에 영어 때문에 장애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답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미용(헤어)전공자들이 훌륭하게 영어의 전문용어를 이해해서 학습 자체가 아무런 막힘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경우와 둘째, 영어의 전문용어에 대하여 굳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 헤어기술을 크게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영어가 학습 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헤어전공자들이 위의 두 경우의 추측과 같이 해석될 때에 어느 것이 사실과 가까울까 다시 다른 설문조사 사항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즉, 이들이 영어(전문용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미용(헤어)기술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의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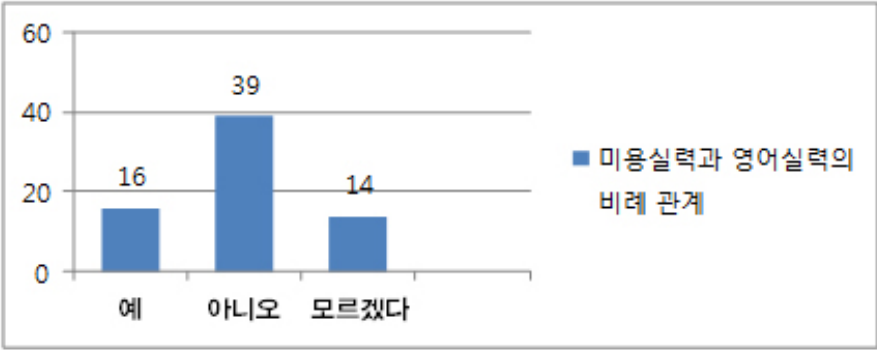


그림 4. 헤어산업종사자들의 영어 실력과 미용 실력의 비례관계 인식 여부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용 실력과 영어 실력의 비례관계를 살펴볼 때, 미용 실력과 영어 실력이 비례한다고 응답한 수치는 전체 69명 가운데 16명(23%)이 비례한다고 대답하고 영어와 미용 실력은 무관하다고 대답한 수치는 39명(57%)이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명(20%)으로 나타난다. 앞선 설문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영어로 인한 학습장애 여부의 결과와 미용 실력과 영어 실력의 비례관계 그림을 동시에 비교할 때 대부분의 미용 전공 학생들이 영어의 중요성 즉, 미용에 있어서 영어의 전문용어 필요성에 관하여 비교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자의 반이 넘게 해외 진출 생각이 있다는 것도 함께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문 조사된 사항을 살펴보면 해외 진출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장애물이 영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영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취업(헤어 분야) 시에 오로지 영어 때문에 해외 진출을 포기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8명(26%)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2명(61%)으로 수치가 집계되었으며, 모르겠다는 답변은 9명(13%)으로 나타났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해외 진출하는데 장애물이 영어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사와 유사하나 이 설문조사는 해외 미용 연수 및 학습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다음의 그래프에 집계된 수치는 취업과 관련하여 그 수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영어 때문에 해외 진출을 포기할까 생각해 본 비율은 18명(26%)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2명(61%)으로 집계되며, 모르겠다는 답변은 9

명(13%)으로 통계하였다. 즉, 미용과 관련하여 수업 및 해외 진출은 영어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취업과 직접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취업 시에는 미용(헤어)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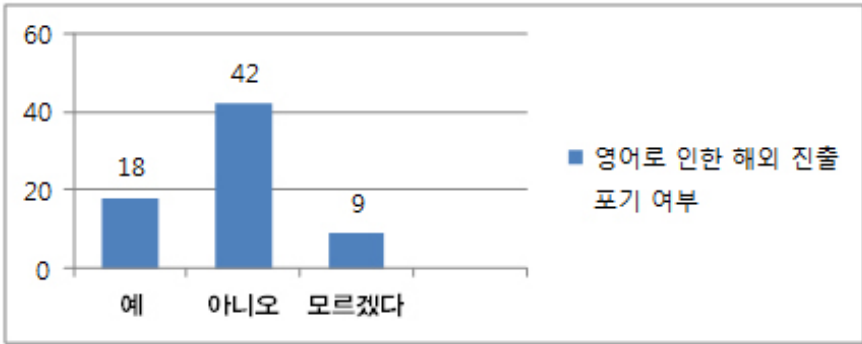


그림 5. 영어로 인한 헤어산업종사자들의 해외 진출 포기 인식 여부

첫째, 학업과 학습 및 취업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취업하기 전에는 해외로의 진출도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취업할 때 영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취업을 포기하고 국내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전히 헤어전공자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영어를 습득하여, 보다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기보다는 헤어기술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한국에서 미용(헤어)취업을 해야 하고 생업을 해야 한다면 국제화 시대인 현재,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미용 분야에 종사하려면 영어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의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이 33명(48%)으로 나왔고,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의 수치는 10명(14%)으로 집계되었으며 모르겠다는 답변은 26명(38%)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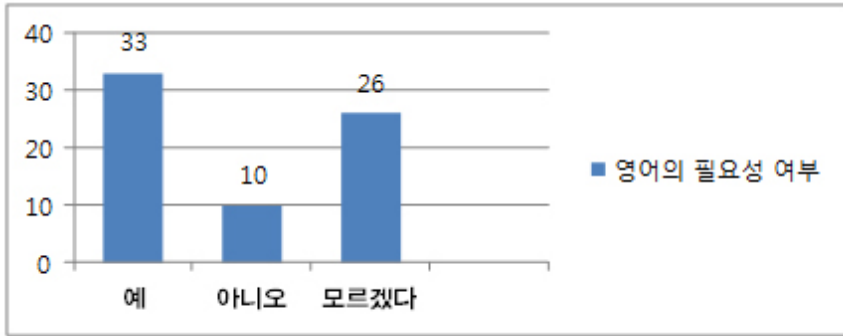


그림 6. 해외진출 이외의 헤어산업 종사자의 영어 필요성 인식 여부

위에서의 통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헤어전공자로 살아가기에 영어의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않고, 보다 수준 높고 전문적인 헤어전공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화 시대로 인하여 해외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영어 및 영어의 기술 설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6가지 항목의 설문조사 사항을 통하여서 미용(헤어)전공자 및 종사자들과 번역의 인식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설문 내용(123문항) 가운데 어떤 문항에서 얼마나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인 한국어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가의 유무에 대하여 통계를 하였다. 각 문항의 원천언어(source language)에 해당하는 보기들은 이 논문의 말미의 [부록]에 수록하도록 하겠다.

123문항에 해당하는 정답의 채점은 수기로 수행하였으며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인, 영어를 목표 언어(target language)인 한국어로의 정확한 번역이 실행된 것만 정답으로 채점을 하였다. 각 123문항에 걸쳐서 69명의 정답에 대한 모든 표기 사항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10문항씩 나누어서 채점의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또한, 각 10개씩의 문항 가운데 전체 690문항의 기재 답안 수와 정답 수 그리고 오역 수의 평균값을 내어 전체 비율 중에서 3개 사항의 비율에 관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전문용어의 정확한 번역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이러한 수치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해명 및 추측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도표로 신도록 하겠다.

4.3. 미용(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II

전체 123문항에 대하여 각 69명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만 지면의 한계상 10개 단위로 나누어서 각 채점한 내용의 평균을 내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 기준치를 정하였다.

표 1. 미용(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작성 번호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9 0	91- 100	101- 110	111- 120	121- 123
기재 답안 수	329/ 690, 48%	320/ 690, 46%	294/ 690, 43%	336/ 690, 49%	205/ 690, 30%	214/ 690, 31%	172/ 690, 25%	214/ 690, 31%	140/ 690, 20%	141/ 690, 20%	202/ 690, 29%	201/ 690, 29%	69/ 207, 33%
정답 수	211/ 690, 31%	192/ 690, 28%	232/ 690, 34%	254/ 690, 37%	110/ 690, 16%	102/ 690, 15%	139/ 690, 20%	165/ 690, 24%	68/ 690, 10%	80/ 690, 12%	91/ 690, 13%	154/ 690, 22%	50/ 207, 24%
오역 수	118/ 690, 17%	128/ 690, 19%	62/ 690, 9%	82/ 690, 12%	95/ 690, 14%	112/ 690, 16%	33/ 690, 5%	49/ 690, 7%	72/ 690, 10%	61/ 690, 9%	111/ 690, 16%	47/ 690, 7%	19/ 207, 9%
비고: 기재 답 안 수 평균: 전체의 33%, 정답 수 평균: 전체의 22% 오역 수 평균: 전체의 12%													

위의 도표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3문항에 대하여 각 10문항씩 나누어 통계를 낸 결과물을 살펴보면, 전체 답안을 적은 비율은 33%에 해당하고 전체의 정답 수 평균은 22%에 그쳤다. 또한, 전체 123문항을 기준으로 오역 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12%나 차지한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미용(헤어)산업 종사자들과 번역 인식 관계 I·II를 다음 장의 분석 결과에서 깊이 있게 번역의 다중체계이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5. 분석 결과

전현주는 「다중체계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2004)에서 1945년부터 1985년에 걸쳐서 번역된 문학작품을 기준으로 다중체계이론과 함께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하였다. 전현주는 언어가 1차적으로 작용하는 충분조건 아래에 국가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번역이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출판·번역된다는 것을 시대별로 문학작품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본 논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다중체계이론과 번역의 관계는 전현주가 분석한 과정과 다소 다름을 밝힌다. 즉, 논자가 증명하고 분석하는 다중체계이론(Poly system theory) 기준은 언어가 주가 되어 다중체계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 즉 미용(헤어)산업이 주가 되며 언어가 부차적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문화의 특성을 띠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언어권에 스며들고 어떤 형태를 띠는 전제조건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적용되는 언어와 다중체계이론과의 관계보다는 ‘문화산업’이라는 큰 맥락에서 출발하여 언어가 부차적으로 작용할 때, 이와 동일한 경우에도 과연 순수하게 언어가 적용되었던 경우와 같이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전략에 의해 형태와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문화산업, 그 가운데 미용(헤어)산업을 선택하였다. 조선 말기 미용(헤어)산업이 대한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최근에 국내의 헤어전문가들이 해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헤어산업과 관련하여 영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분석을 통하여서 다른 분야, 즉, 산업이 주가 되고 언어가 부차적인 분야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에 대한 분석과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서 헤어 문화산업에 있어서 영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을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실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그래프 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상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용분야의 해외 진출에 대하여 반이 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언어, 즉 영어라는 것을 그림 2를 통하여 관찰 할 수 있다. 동일한 설문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헤어학습 시에 영어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장애를 느끼는가? 의 질문에 대하여 반이 넘는 수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음을 그림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영어 실력과 미용(헤어)실력은 비례하

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어에 대해 헤어기술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적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림 4를 통하여 관찰 할 수 있다. 취업에 있어서 오로지 영어 때문에 취업을 포기할 생각이 비교적 적다는 의견이 나와서 미용(헤어)과 영어의 관련성이 앞선 연구처럼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5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은 해외에 갈 필요성이 없다면 국내에서 미용(헤어)활동 할 때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라는 설문조사에 48%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그림 1부터 그림 6의 결과를 분석하면 미용(헤어)전공자들이 영어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외도 진출하고 싶지만 주 전공이 헤어전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의 필요성을 역설적이게 조금 느낀다는 점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영어와 미용(헤어)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영어에 대하여 헤어 전공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도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결과로는 첫째, 3분의 1에 해당하는 헤어전공자 및 종사자들이 영어의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정확히 기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 질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헤어전공자 및 종사자들이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인 영어의 전문용어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인 한국어로 정확히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놀랍게도 전체 69명을 대상으로 한 123문항의 영어로 쓰인 전문용어에 대하여 한국어의 전문용어로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오답을 적었다거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답변이 무려 전체 비율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대로 영한 번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역이나 다른 뜻으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10분의 1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왜 그럴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할 수 있겠다.

첫째, 헤어전공자나 종사자들이 학습 시부터 영어의 헤어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영어가 부차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헤어 공자나 종사자들이 헤어기술을 배울 때 영어를 제대로 잘 못 배운 선배로부터 헤어기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답습하여서 잘못된 전문용어의 의미가 화석화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하여 학문적 센서 의식 없이 사용하고 다시 다른 후배에게 기술과 오역의 전문용어 번역을 전달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같이 많은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분석 할 수 있겠다.

한편, 앞선 미용(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I의 도표에서 관찰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헤어)산업 종사자들이 영어의 전문용어를 파악해야, 보다 더 정확하고 폭 넓은 미용기술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낮은 전문용어 이해도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미용사 자격시험¹⁾에서 관찰 할 수 있다. 즉, 1과목의 미용관련 문제가 20문항, 2과목에서 공중보건학 10문항, 3과목에서 소독학 10 문항, 4 과목의 피부학, 10 문항이며 5 과목의 공중위생법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모두 60문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용(헤어) 관련 전문용어의 문제는 1과에서의 미용이론의 20문항 가운데 4문제만이 출제되고 다른 분야의 문제에서는 1문항도 출제 되지 않았다. 이것은 미용(헤어) 필기 시험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용(헤어)분야의 전문 출제 기관에서도 전문용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용을 배우는 사람도 정부에서의 기관조차도 전문영 어 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위의 미용(헤어) 산업종사자와 번역 인식관계 II와 같이 영어의 전문용어 이해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추론 할 수 있다.

6. 결론

두 언어의 번역 시에 그림자처럼 수반되는 필요 · 충분조건이 ‘문화’라는 요소이다. 다시 말해, 한나라의 언어(source language, 원천언어)는 또 다른 언어(target language, 목표 언어)와 충돌하거나 만나거나 교류함과 동시에 두 문화도 충돌하거나 만나거나 교류를 하게 된다. 특히, 언어 자체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나 더 넓게는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을 국가(정부)의 정책과 전략과 결

1) 미용사 자격시험의 기출 문제에 관하여 웹 사이트, www.comcbt.com을 참고하여 자격시험 (필기) 문항을 볼 수 있음.

부하여 연구하면, 문화와 언어 및 번역의 관계에 대하여 더 큰 밑그림을 구상하고 색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의 현상에 관하여 국가의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하여 말 할 수 있는 이론이 ‘다중체계번역이론’ 이다.

국내에서 다중체계이론과 번역에 관하여 연구한 사람으로 전현주(2004)와 박옥수(2008)가 있다. 전현주는 ‘다중체계이론’과 ‘현대 번역 문학사’를 통하여서 정부의 전략과 시류로 인해 번역·출판의 ‘흥망성쇠(興亡盛衰)’ 기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박옥수는 개화기 한국번역 작품의 기술적·기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현주와 박옥수의 공통점은 다중체계이론에 있어서 ‘언어’가 주요 1차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다중체계이론과 번역의 관계를 풀어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고는 앞서 연구한 전현주와 박옥수의 연구에 힘을 얻어 응용하여, ‘문화산업’에 있어서 다중체계이론이 적용된다는 전제조건 아래 2차적으로 작용하는 언어(번역)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대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미용(헤어)문화산업에 있어서의 번역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미용(헤어)문화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모 및 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용(헤어)전공자와 종사자로 남녀노소(男女老小)의 구분 없이 지역을 넘어 폭넓게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크게 2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었고 이 통계의 분석자료로서 6부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00부를 배부하여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답안이 작성된 설문조사 내용을 추린 결과, 69부가 분석자료로서 총 123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첫째 설문내용은 ‘미용 분야의 해외 진출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 69명 가운데 있다는 의견이 40명(58%), 없다고 13명(19%), 모르겠다는 의견이 16명(23%)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조사자의 50%가 넘게 해외로 미용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통계·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내용은 해외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내용이었다. 그 결과, 그렇다가 40명(58%)으로 나타났고, 아니오 가 19명(28%), 모르겠다가 10명(14%)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조사자의 40명(58%)이 넘게 장애물이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셋째 내용은 학습 시 언어(영어)로 인한 미용학습의 장애 여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는 답변이 18명(26%), 아니오 는 35명(51%), 모

르겠다는 16명(23%)으로 집계되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 상 영어가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학습 자체에는 비교적 피부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설문조사 내용은 미용 실력과 영어 실력의 관계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학습 시에 영어로 인한 장애 여부의 설문 조사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용 실력과 영어 실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6명(23%) 아니오 는 39명(57%), 모르겠다는 14명(20%)의 통계 수치가 나왔다. 이것은 영어의 중요성을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미용의 기술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뷰티(헤어)산업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설문조사 I의 다섯째는, 영어 때문에 해외 진출 포기 여부를 물어본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18명(26%)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아니오 는 42명(61%), 모르겠다는 9명(13%)으로 나타났다. 헤어산업 종사자들의 미용(헤어)기술의 중요성과 관념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즉, 영어는 해외 진출 포기의 주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된다.

마지막 여섯째, 미용(헤어)종사자 및 전공자들이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미용 분야에 종사하려면 영어의 필요성 여부를 질문에 위에서 조사된 설문조사 통계와는 다르게 그렇다는 답변에 33명(48%)이 답변하고 아니오 는 10명(14%), 모르겠다는 26명(3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어가 본업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영어 때문에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미용(헤어) 종사자나 전공자들이 영어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뷰티(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I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690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답을 적은 비율은 전체의 34%에 그쳤으며, 정답 수는 전체 문항의 23%이고 오역 수, 즉 잘못 기재하거나 틀리게 기재한 답변은 전체의 10%가 넘게 통계 · 조사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뷰티(헤어)산업 종사자와 번역 인식 관계 I, II을 종합해보면, 설문지에 응한 조사자들이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미용기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용분야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미용기술의 중요성도 인지함과 동시에 영어에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국가 자격시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첫째, 영어의 전문용어에 관하여 출제된 문항이 다소 극소수의 문제만 출제되고 나머지

는 미용 자체에 관한 질문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국제화 시대로 인하여 해외에 미용종사자나 전공자들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내의 수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미용실에 드나드는 외국인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미용산업분야 종사자나 전공자들에게 영어 전문용어의 교육과 함께 올바른 개념·정의를 심어 줄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실정에 맞게 정부의 정책, 예를 들어 미용 자격 시험관 같은 방법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Even-zohar, Itamar. (1978).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 system in Holmes, J,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Leuven, acco, 1978.
- Even- zhar, Itamar. (1990). *Poly system Studies*,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Today, 11(1).
- Hermans, T.(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Beckenham: Croom Helm.
- Kim, H. (2017). *A Study of Analysis on Deciding the Job for the Hair Majoring students' General Personality*. Unpublished MA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 Kim, J. (2016). *The Forming of Korean Industry and the Role of businesses strategie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Unpublished MA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Kim, S. (2017). A Study of Hair Culture History. *A Journal of Korean nail Beauty Association*.5(2). 47-52.
- Choi, M. (2016). *A Study of Culture Contents Industry System*. Unpublished MA dissertation, Kyungbuk University.
- Jeon, H. (2004). A Literary history of Korean modern translation and poly System. *A Journal of Translation* 5(1): 167-183.
- Lee, D. (2013). *A Study of Analysis for the Korean and America FTA Recognition for the Beauty Industry Employees*. Unpublished MA dissertation. The Postgraduate University of Seoul Venture.
- Moon, H. (2012). *A Study of Analysis for the Specific High School Hair Beauty Case Study*. Unpublished MA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 Park, O. (2008). Descriptive and Functional analysis of Enlightening Period in Choseon. *Kyuerae Literature* 41: 483-513.
- Yoo, M. (2014). *A effect of Loyalty and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Domestic Hair Service Quality*. Unpublished MA dissertation. SeoKyung University.
- Yoon, S. (2011). *A Study of the method to develop through the industry for the Han wave Culture Expansion*. Unpublished MA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Yoo, B. (2016). *A Study of Export for the Global Times Korean Culture Contents Industry*. Unpublished MA dissertation. SungKyunGwan University.

This paper was received on 29 April 2018; revised on 11 May 2018; and accepted on 30 May 2018.

Author's email address

belle-kim75@hanmail.net, eunju3320@hanmail.net.

About the author

Dongmie Kim, Graduated from Sejong University(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Translation), and teaches English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unju Rhyu works for Hanseo University as a full time professor as a beauty (hair major) departmen

[부록1]: 원천언어(영어, source language)의 목표언어(한국어, target language)의 설문조사 전문 용어에 대한 리스트.

	English Terminology	Korean Terminology	English Terminology	Korean Terminology	English Terminology	Korean Terminology
1	cosmetic (face)powder / power		hair part/ part		guide line	
2	decreasing graduation		gauze		gel	
3	golden point		commercial make-up		graduation form	
4	glaze		natural make-up		nape	
5	nail art		net		non stem roller curl	
6	down shaping		dandruff scalp treatment		dry scalp treatment	
7	rod out		roller curl		long stem roller curl	
8	loop		reset		liquid foundation	
9	rinse		lip-gloss		lipstick	
10	lip-cream		marcel wave		mascara	
11	mask		make-up		make-up base	
12	make-up artist		cuticle		stage make-up	
13	mousse		melanin		back diagonal part	
14	back center part		back combing/ back brushing		beauty make-up	
15	brush		v-part		blow dry	
16	blocking		vinyl cap		dandruff removal rinse	
17	dandruff removal shampoo		beating		side part	
18	acid shampoo		set lotion		setting	
19	section		center parting		scalp treatment	
20	square part		stand up curl		stem	
21	strand curl		straight hair		steamer/hair steamer	
22	stick		stick foundation		steam	
23	spiral/spiral wrap		sliding cutting		slicing	
24	slapping		cystine		bride make-up/	

				wedding make-up	
25	amino acid		eyeliner	eyelash curler	
26	iron/ hair iron		accessory	hennin	
27	original set		oily scalp treatment	oil rinse	
28	winding		one length form	uniform layer	
29	Isadora style		ear to ear part	increase layered form	
30	ear point		electronic setting machine	intermediate rinse	
31	cowlick part		conditioning rinse	conditioning shampoo	
32	cupping		keratin	coordinator	
33	cold wave		cream rinse	towel	
34	test curl		tension	treatment	
35	foundation		patch test	permanent wave	
36	power puff		processing time	plain scalp treatment	
37	pin curl wave		finger wave	highlight color	
38	half stem roller curl		henna	hair dryer/ hand dryer	
39	hair line		hair setting	hair shaping	
40	hair spray		hair coloring	hair waving	
41	hair bleach		hair cut	hormone	